

草本卷 少陽人 藥方에 관한 研究

배효상* · 박성식*

Abstract

The Study of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

Bae Hyo-Sang* ·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catch DongMu(東武)'s viewpoint of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

2. Method

Through Comparing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s and medications on those of DongEuiBoGam(東醫寶鑑), DongyiSooseBowon Gabobon and DongyiSooseBowon Sinchukbon, we can find DongMu(東武)'s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3. Results

1) The same kind of prescriptions between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Chobongeun Soyangin are not entirely identical.

2) GamCho(甘草), GaengMi(粳米) and Sagunja(使君子) were used in the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s. That means DongMu(東武)'s viewpoin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was not entirely established.

3) PaedockSan(敗毒散), YukmijihwangTang(六味地黃湯) and BaekhoTang(白虎湯) were representative prescriptions in the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s. And that prescriptions were connected to DongyiSooseBowon Sinchukbon.

4) The same kind of medications which were recorded on DongEuiBoGam(東醫寶鑑) and Chobongeun Soyangin are eighteen. And that medications are the structural principle of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s.

Key words : Chobongeun Soyangin prescriptions, DongMu(東武)'s viewpoint, DongEuiBoGam(東醫寶鑑)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배효상
교신자 배효상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 전화) 031-710-3723 / 팩스) 031-710-3780
E-mail) bhs70@hitel.net

I. 緒 論

『草本卷』¹⁾에 제시된 藥方은 東武가 醫藥經驗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四象醫學의 體質病證藥理의 시각으로 발전하기 전 형태의 藥方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體質病證에 대하여 病證論에 체계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東醫壽世保元』에 기재된 藥方의 제시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草本卷』 藥方을 연구하는 것은 東武의 초기 藥方에 대한 시각이 어떠한 방향에서 시작하였는지 알아보고, 이를 『東醫寶鑑』에 기재된 藥方과 『東醫壽世保元 甲午本』²⁾, 『東醫壽世保元 辛丑本』³⁾에 기재된 藥方과 비교 탐구하여 東武의 藥方에 대한 시각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東武는 『草本卷』에서 少陽人 藥方을 一統과 二統에 걸쳐서 기재하고 있으며, 藥方의 數도 45종으로 가장 많이 기재하고 있다. 이로써 東武가 少陽人 藥方을 먼저 기재하여 이에 대한 病證을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藥方 第一統에 기재된 少陽人 藥方은 주로 古方에서 藥物을 加減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며, 少人藥方 第二統에 기재된 少陽人 藥方은 동무가 새롭게 再構成한 藥方으로 보인다. 이러한 『草本卷』 少陽人 藥方이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여 갔는지에 관한 연구로 裒⁴⁾의 少陽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를 들 수 있다. 단 이 논문은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의 同名藥方을 위주로 파악되어 東武가 초기에 어떠한 시각에서 『草本卷』 藥方을 찾아왔는지 알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을 중심으로 古方에서 加減한 것으로 파악되는 藥方을 『東醫寶鑑』에서

살펴보고, 이 藥方이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어떻게 변하여 갔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同名藥方

1) 『東醫寶鑑』에 同一한 藥方名이 기재된 藥方

『草本卷』 少陽人 藥方중 『東醫寶鑑』에 同一한 藥方名이 있는 藥方은 敗毒散, 三黃石膏湯, 澤瀉湯, 五苓散, 益元散, 導赤散, 白虎湯(2), 肥兒丸, 防風通聖散의 10개 藥方이다. 이는 變方까지 포함한 『草本卷』 少陽人 45개 藥方의 22%를 차지한다.

2) 『東醫寶鑑』에 同一한 藥方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類似藥方을 찾아볼 수 있는 藥方 六味地黃湯, 陷胸湯, 朱砂安神湯, 甘遂天一丸은 『東醫寶鑑』에서 類似藥方을 찾아 볼 수 있다.

六味地黃湯은 六味地黃丸, 六味地黃元과 구성 내용이 비슷하며, 陷胸湯은 大陷胸湯, 小陷胸湯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朱砂安神湯은 朱砂安神丸과 구성 내용이 비슷하며, 甘遂天一丸은 甘遂散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3) 『草本卷』 藥方중 『甲午本』에 同一한 藥方名이 있는 藥方

『草本卷』 少陽人 藥方중 『甲午本』에 同一한 藥方名이 있는 藥方은 渡海白虎湯, 防風通聖散, 白虎湯(2)⁵⁾, 肥兒丸, 水火既濟湯, 柴胡瓜蒌湯, 陽毒白虎湯, 五苓散, 六味地黃湯, 猪苓白虎湯, 千金導赤散, 七味苦蔘湯, 七味猪苓湯, 八味苦蔘湯의 15개 藥方이다.

1) 李濟馬 原著·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2)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影印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8.

4) 裒孝相·朴性植. 少陽人 藥方의 형성과정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3):33-51

5) 『草本卷』에 기재된 白虎湯은 一統과 二統에 기재된 藥方 구성이 달라 2개의 藥방으로 구분해서 파악하였다.

4) 『草本卷』藥方중 『辛丑本』에 同一한 藥方名이 있는 藥方 『草本卷』少陽人 藥方중 『辛丑本』에 同一한 藥方名이 있는 藥方은 甘遂天一丸, 白虎湯(2)⁶⁾, 肥兒丸, 陽毒白虎湯, 五苓散, 六味地黃湯의 7개 藥方이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東醫寶鑑』,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辛丑本』과 『草本卷』의 少陽人 藥方名 比較

藥方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藥方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第一編(少陽人 藥方)				第二編(少陽人 藥方)			
12-1. 敗毒散	○	-	-	13-1. 養神湯	-	-	-
石膏敗毒散	-	-	-	13-2. 萸瓜湯	-	-	-
柴胡敗毒散	-	-	-	13-3. 加味既濟湯	-	-	-
木通敗毒散	-	-	-	13-4. 清腦散火湯	-	-	-
玄寧敗毒散	-	-	-	13-5. 苦毒敗毒散	-	-	-
12-2. 六味地黃湯	-	○	○	13-6. 瓜薤仁地黃湯	-	-	-
地骨皮地黃湯	-	-	-	13-7. 養性地黃湯	-	-	-
知柏地黃湯	-	-	-	13-8. 防風聖散	○	○	-
12-3. 消毒散火湯	-	-	-	13-9. 千金導赤散	-	○	-
12-4. 三黃石膏湯	○	-	-	13-10. 柴胡瓜實湯	-	○	-
12-5. 澤瀉湯	○	-	-	13-11. 白虎湯(2)	○	○	○
12-6. 少陽利水湯	-	-	-	13-12. 渡海白虎湯	-	○	-
12-7. 五苓散	○	○	○	13-13. 豬苓白虎湯	-	○	-
12-8. 益元散	○	-	-	13-14. 陽毒白虎湯	-	○	○
12-9. 導赤散	○	-	-	13-15. 七味苦毒湯	-	○	-
12-10. 白虎湯(1)	○	○	○	八味苦毒湯	-	○	-
12-11. 陷胸湯	-	-	-	13-16. 水火既濟湯	-	○	-
12-12. 朱砂安神湯	-	-	-	13-17. 七味猪苓湯	-	○	-
12-13. 單黃連湯	-	-	-	13-18. 萸瓜湯	-	-	-
12-14. 肥兒丸	○	○	○	13-19. 忍冬黃芪苦毒湯	-	-	-
12-15. 芫花毒甲散	-	-	-	13-20. 風活防風湯	-	-	-
12-16. 甘遂天一丸	-	-	○	13-21. 加味破癆湯	-	-	-
12-17. 輕粉丸	-	-	-				

비고) ○ : 같은 藥方名이 있다.
 · : 같은 藥方名이 없다.

2. 『東醫寶鑑』에서 찾아볼 수 있는 『草本卷』少陽人 藥方

1) 敗毒散

敗毒散은 『東醫寶鑑』에서 雜病篇·瘟疫에

“溫病初 證未端的 先以敗毒散治之 看歸在何經 隨經施治(正傳)”⁷⁾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敗毒散으로 名名된 藥方의 구성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敗毒散이라는 藥方名으로부터 유추해 본다면, 『東醫寶鑑』에 기재된 人參敗毒散, 荊防敗毒散, 加味敗毒散등의 藥方에서 유사한 藥物 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甲午本』에서는 「元明二代 醫家著述中 少陽人病 行用要藥 九方」에 『東醫寶鑑』에서 제시한 荊防敗毒散을 기재하고 이 藥方이 醫鑑에서 출전되었다는 것을 밝혀 놓았다. 또한 이 荊防敗毒散을 今考更定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今考更定한 『甲午本』의 荊防敗毒散은 『草本卷』의 敗毒散에서 木通, 車前子, 生地黃, 甘草의 藥物이 빠져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東武가 少陽人의 外感에 대표적으로 생각한 藥方은 荊防敗毒散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藥方은 『辛丑本』까지 이어져 남게 된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야 하는 藥物이 生地黃이다. 『草本卷』 敗毒散에서는 生地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東醫寶鑑』의 荊防敗毒散(醫鑑)에서는 生地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加味敗毒散(正傳)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生地黃을 사용하는 정신은 『甲午本』 新定 荊防敗毒散에서는 쓰이지 않다가 『辛丑本』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면 東武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임상경험에 따라 藥方의 구성을 바꾸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표 2.에 나타난 敗毒散類의 藥物 構成을 살펴보면, 『辛丑本』 荊防敗毒散에 사용된 車前子, 生地黃, 赤茯苓은 『草本卷』 敗毒散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辛丑本』 荊防敗毒散과 가장 유사한 藥物의 구성은 『草本卷』 敗毒散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藥物의 용량에 있어서는 『草本卷』 敗毒散에서 荊芥와 甘草를 제외하고 모든

6) 『草本卷』 白虎湯을 기준으로 2개로 세었다.

7)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민 문화사. 1999. p.836

약재를 2錢 사용하였고, 『辛丑本』 荊防敗毒散에서는 모든 약재를 1錢으로 통일하고 있다.

표 2. 敗毒散類의 藥物 構成 (단위 : 錢)

약방 약물	『草本卷』 敗毒散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荊防敗毒散 (醫考)	荊防敗毒散 (今考要定)	『甲午本』 新定 荊防敗毒散	『辛丑本』 新定 荊防敗毒散
		人參敗毒散 (醫考)	荊防敗毒散 (醫考)	荊防敗毒散 (得効)	加味敗毒散 (正傳)				
羌活	2	1	1	1	0.6	1	1	2	1
獨活	2	1	1	1	0.6	1	1	1	1
柴胡	2	1	1	1	0.6	1	1	1	1
前胡	2	1	1	1		1	1	1	1
木通	2								
車前子	2								1
生地黃	2				0.6				1
赤茯苓	2	1	1	1	0.6	1	1		1
防風	2		1	1	0.6	1	1	1	1
荊芥	0.5		1(德)	1	0.6	1(德)	1(德)	0.5	1
甘草	0.3	1	1	0.5	0.3	1			
枳殼		1	1	1	0.6	1			
枳椇		1	1	1	0.6	1			
川芎		1	1	1	0.6	1			
人參		1	1	1	0.6	1			
蒼朮					0.6				
白朮					0.6				
赤芍藥					0.6				
密蒙					0.6				
薄荷		少許	少許		0.3	少許	少許	0.5	
生薑		三片	三片		三				
大蒜					二				
玄參								1	
山梔子								1	
忍冬藤								1	
地骨皮								1	1

『草本卷』 敗毒散의 變方으로 기재된 石膏敗毒散, 柴胡敗毒散, 木通敗毒散, 玄參敗毒散은 『東醫寶鑑』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다. 이들 각 藥方의 명칭은 加味된 藥物을 붙여서 구성하고 있으며, 石膏敗毒散에 加味된 石膏, 木通敗毒散에 加味된 猪苓, 玄參敗毒散에 加味된 玄參은 『草本卷』 敗毒散의 藥物 구성과 동일하지 않은 藥物이다. 즉 石膏, 猪苓, 玄參은 기본적인 敗毒散의 개념에 각 藥物의 반응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加해진 藥物이다. 따라서 石膏敗毒散의 主治로 기재된 “治運氣滯

疾 熱多寒少之證”에서 石膏를 加하는 의미를 熱에 둔 것으로 파악 할 수 있고, 木通敗毒散의 主治로 기재된 “治浮腫”에서 猪苓의 의미를 浮腫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玄參敗毒散의 主治로 기재된 “治咽喉”에서 玄參의 의미를 咽喉에 두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藥物을 加味하는 개념은 『甲午本』부터 파악되는 體質病證藥理라는 개념으로 보기에 는 힘들며, 기존 證治의 개념이 더욱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에 기재된 敗毒散類의 藥方의 공통 약물은 羌活, 獨活, 柴胡이며, 人參敗毒散(醫鑑)과 加味敗毒散을 제외하면 羌活, 獨活, 柴胡, 前胡, 防風, 荊芥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으로 少陽人 表證에 대표적인 약물로 파악할 수 있는 羌活, 獨活, 荊芥, 防風, 柴胡, 前胡는 『草本卷』에서부터 東武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여기에 生地黃의 개념을 『草本卷』 敗毒散부터 고려하고 있다가 『甲午本』에서는 빼고 사용하였고 『辛丑本』 荊防敗毒散에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六味地黃湯

六味地黃湯은 『東醫寶鑑』에서 同一한 藥方名을 가진 藥方은 찾을 수 없으며, 다만 六味地黃元, 六味地黃丸으로 비교해 볼 수 있다. 『東醫寶鑑』에 기재된 六味地黃元은 『東醫寶鑑』·內景篇·卷三·腎臟·腎病治法8)에 기재된 六味地黃丸을 말하며, 이 藥方의 구성은 熟地黃八兩 山藥 山茱萸 各四兩 澤瀉 牡丹皮 白茯苓 各三兩으로 『草本卷』 六味地黃湯은 이 藥方에서 山藥을 去하고 山茱萸를 加하여 구성하고 있다.

『東醫寶鑑』에 기재된 六味地黃丸은 그 출전을 正傳으로 밝혀 놓았는데, 東武가 『甲午本』 元明二代 醫家著述中 少陽人病 行用要藥 九方에서 기재하고 있는 六味地黃湯과는 그 용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즉 六味地黃丸의

각 藥物의 용량을 20錢으로 나누면 『甲午本』 「元明二代 醫家著述中 少陽人病 行用要藥 九方」에서 기재하고 있는 六味地黃湯의 藥物 用量이 되는데, 이는 藥方을 구성하고 있는 藥物의 용량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丸을 湯으로 바꿀 경우에 대한 藥物의 용량으로 파악된다.

『草本卷』 六味地黃湯에 藥物을 加味해서 구성한 變方인 地骨皮地黃湯과 知栢地黃湯은 『東醫寶鑑』에서 同一한 藥方名을 찾을 수는 없었다. 地骨皮地黃湯의 六味地黃湯에 地骨皮 貝母 各1錢을 加하는 정신은 찾기 힘들었으며, 다만 咳嗽에 貝母를 사용하는 용례⁹⁾는 찾아볼 수 있었다. 『草本卷』 地骨皮地黃湯의 主治證도 “治盜汗咳嗽”로 咳嗽과 관련하여 貝母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知栢地黃湯의 六味地黃湯에 黃栢 知母 各2錢을 加하는 정신은 몇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¹⁰⁾ 이들의 主治證을 살펴보면 小便不禁, 勞聾(腎虛耳聾), 勞嗽, 夜嗽, 久嗽로 『草本卷』 知栢地黃湯의 主治證인 陰虛便血과는 차이가 있다.

『草本卷』 六味地黃湯에서 藥物의 加味와 主治證만을 제시하고 따로 藥方名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면 “加牛膝, 車前子各一錢, 治水腫. 加竹瀝, 生地黃, 治吐血.”로 이렇게 加味하는 것을 『東醫寶鑑』에서 찾아보면 車前子와 竹瀝, 生地黃을 加味하는 것은 없고 牛膝을 加味하는 용례¹¹⁾를 찾아볼 수 있다.

『草本卷』에는 六味地黃湯외에 二統에서 瓜藹仁地黃湯과 黃柏地黃湯을 제시하고 이들 地黃湯類 藥方에 공통적으로 다 쓰인 藥物은 熟地黃, 山茱萸, 澤瀉이다. 이 세가지 藥物외에 黃柏地黃湯을 제외한 『草本卷』 地黃湯類의 藥方에는 牡丹皮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파악해본다면 熟地黃, 山茱萸, 澤瀉, 牡丹皮를 위주로 한 약방의 구성이 『草本卷』 地黃湯類의 기본 골격으로 사료된다. 이후 『甲午本』에서는 正傳의 六味地黃湯을 제시하고 地黃湯이 붙은 新定方이 보이지 않으며 『辛丑本』으로 가면서 獨活地黃湯, 荊防地黃湯, 十二味地黃湯이 新定된다. 『辛丑本』의 地黃湯類의 藥方도 모두 熟地黃, 山茱萸, 澤瀉의 공통 藥物을 가지고 있으며, 牡丹皮는 荊防地黃湯에서 사용되지 않았고, 白茯苓이 모두 사용되었다. 따라서 『草本卷』의 熟地黃, 山茱萸, 澤瀉의 골격은 『辛丑本』 新定方까지 地黃湯類 藥方의 기본골격으

9)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東醫寶鑑』 雜病篇 · 咳嗽 · 勞嗽 p.1236

“酒色過度 虛勞少血 津液內耗 心火自炎 遂使燥熱乘肺 咯唾膿血 上氣涎潮 其嗽連續而不可已. 須用六味地黃丸(方見虛勞)加橘紅 貝母 黃栢 知母<入門>”

『東醫寶鑑』 雜病篇 · 咳嗽 · 夜嗽 p.1245

“凡夜嗽 久嗽 多屬腎氣虧損 火炎水涸 或津液涌而爲痰. 順用六味地黃丸(方見虛勞)加黃栢 知母 天門冬 貝母 橘紅, 以滋化源. 滋陰降火湯(方見火門)亦佳<回春>”

10)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東醫寶鑑』 · 內景篇 · 卷四 · 小便 · 小便不禁 p.409

“下虛 內損而不禁, 宜補膀胱陰血 瀉火邪爲主. 加減八味丸 六味地黃丸 加知母 黃栢 五味子. 補陰丸最妙(方見火門)” 『東醫寶鑑』 · 外形篇 · 卷二 · 耳 · 異名 p.576

“腎虛耳聾 宜六味地黃丸(方見虛勞)加遠志 菖蒲 黃栢 知母 並鹽水炒 亦治陰虛火動而聾<回春>”

『東醫寶鑑』 雜病篇 · 咳嗽 · 勞嗽 p.1236

“酒色過度 虛勞少血 津液內耗 心火自炎 遂使燥熱乘肺 咯唾膿血 上氣涎潮 其嗽連續而不可已. 須用六味地黃丸(方見虛勞)加橘紅 貝母 黃栢 知母<入門>”

『東醫寶鑑』 雜病篇 · 咳嗽 · 夜嗽 p.1245

“凡夜嗽 久嗽 多屬腎氣虧損 火炎水涸 或津液涌而爲痰. 順用六味地黃丸(方見虛勞)加黃栢 知母 天門冬 貝母 橘紅, 以滋化源. 滋陰降火湯(方見火門)亦佳<回春>”

11)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東醫寶鑑』 · 雜病篇 · 卷十一 · 小兒 · 語遲行遲 p.1714

“行遲者 腳軟是也. 氣血不充 骨髓不滿 軟弱不能行. 或肝腎俱虛 肝主筋 筋弱不能束骨. 宜六味地黃丸 加鹿茸 牛膝 五味子 五加皮 久服之. 虎骨丸亦佳 或用五加皮散<得效>”

“小兒鶴膝者 由稟受不足 血氣不充 故肌肉瘦癯 骨節呈露如鶴之膝 乃腎虛得之. 宜六味地黃丸 加當歸 牛膝 鹿茸 久服 仍以大南星炮爲末 醋調烘熱貼之 甚良<回春>”

로 사용되고, 牡丹皮와 白茯苓이 加味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藥方의 구성 藥物은 표 3.에 기재한 바와 같다.

가장 후대에 新定된 것으로 보이는 『辛丑本』 荊防地黃湯은 『草本卷』 黃柏地黃湯의 모습에서 藥物 구성상의 유사성을 보이는데, 地黃湯類의 기본골격인 熟地黃, 山茱萸, 澤瀉와 『草本卷』 地黃湯類의 藥方중에서 黃柏地黃湯에서만 보이는 獨活, 車前子, 羌活, 防風, 荊芥의 藥物 구성이 『辛丑本』 荊防地黃湯으로 이어진다. 또한 『草本卷』 黃柏地黃湯의 설명에서 “此方虛弱時每服三十貼. 忌哀心, 怒心, 鷄雉及醋蒜辛物等.”이라는 기록은 『辛丑本』 荊防地黃湯의 “無論頭腹痛痞滿泄瀉 凡虛弱者 數百貼用之 無不必效 屢試屢驗”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표 3. 地黃湯類의 藥物 構成 (단위 : 錢)

약방	『草本卷』				『東醫寶鑑』		『辛丑本』 六味地黃湯 (正傳)	『辛丑本』			
	六味地黃湯	地骨皮地黃湯	知柏地黃湯	瓜蒌仁地黃湯	黃柏地黃湯	六味地黃丸 (正傳)		六味地黃湯 (今考異)	獨活地黃湯	荊防地黃湯	十二味地黃湯
熟地黃	4	4	4	4	4	30	4	4	4	2	4
山茱萸	3	3	3	2	2	40	2	2	2	2	2
枸杞子	3	3	3								1
白茯苓	2	2	2			30	1.5	1.5	1.5	2	1.5
澤瀉	2	2	2	1.5	2	30	1.5	1.5	1.5	2	1.5
牡丹皮	1	1	1	1		30	1.5	1.5	1		1
地骨皮		1									1
貝母		1									
黃柏			2		1.5						
知母			2								
赤茯苓				2	2						
瓜蒌仁				1.5	1						
玄參				1	1.5						1
獨活				1	1				1	1	
車前子				1	1					1	1
羌活				1	1					1	
防風				1	1				1	1	1
荊芥				1	1					1	1
前胡					1						
山藥						40	2				
覆盆子											1

3) 三黃石膏湯

三黃石膏湯은 『東醫寶鑑』·雜病篇·卷二·寒(上)·傷寒陽毒¹²⁾에 기재되어 있다. 이 醫鑑의 藥方과 『草本卷』 三黃石膏湯은 構成藥物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醫鑑의 三黃石膏湯은 黃連, 黃柏, 黃芩의 구성에 石膏를 사용하는 것이고, 『草本卷』 三黃石膏湯은 生地黃, 黃連, 黃柏의 三黃에 石膏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三黃石膏湯에 生地黃을 사용하는 것은 『東醫寶鑑』에서 찾지 못하였다. 각 藥方의 構成藥物은 표 4.에 기재된 바와 같다.

『草本卷』 三黃石膏湯의 主治證은 “治三焦積熱, 紅系丹毒, 走脛肢體或以痘疹毒, 遍滿胸壁二症俱是重症不可不急治”이고, 醫鑑의 三黃石膏湯은 “治陽毒發斑 身黃 眼赤 狂叫欲走 謔語六脉洪大”¹³⁾로 傷寒 陽毒에 사용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파악된다.

표 4. 『草本卷』 三黃石膏湯과 『東醫寶鑑』에 기재된 三黃石膏湯의 構成藥物 (단위: 錢)

약방	『草本卷』 三黃石膏湯	『東醫寶鑑』	
		三黃石膏湯 (醫鑑)	
石膏	2	3	
生地黃	2		
山梔子	2	1.5(山梔仁)	
黃連	2	1.5	
黃柏	2	1.5	
黃芩		1.5	
麻黃		1	
香豉		半合	
生薑		三片	

4) 澤瀉湯

『草本卷』 澤瀉湯은 『東醫寶鑑』·外形篇·卷一·頭に 기재된 仲景의 澤瀉湯¹⁴⁾과 『東醫寶鑑』·雜病篇·卷十·婦人에 기재된 正傳의 澤瀉湯¹⁵⁾과 공통되는 構成藥物이 없다. 『草本

12)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28

“石膏三錢 黃芩 黃連 黃柏 山梔仁各一錢半 麻黃一錢 香豉半合. 右剉 作一貼 入盞三片 細茶一撮 水煎服 <醫鑑>”

13)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28

卷』澤瀉湯은 『草本卷』備忘錄에 瀉清湯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瀉清湯은 『東醫寶鑑』에서 同一한 藥方名으로 기재된 藥方은 없고, 다만 瀉靑丸(綱目)이 그 構成藥物에 있어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澤瀉湯이라 기재된 藥方에 澤瀉가 없이 구성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아, 이 『草本卷』澤瀉湯은 備忘錄에 기재된 瀉清湯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草本卷』의 필사과정에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草本卷』澤瀉湯과 『東醫寶鑑』의 瀉靑丸의 主治證을 살펴보면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데, 『草本卷』澤瀉湯의 主治證은 “治大人中風, 小兒急驚風”으로 기재되어 있고 『東醫寶鑑』에 기재된 瀉靑丸의 용례를 살펴보면 『東醫寶鑑』·雜病篇·卷十一·小兒에서 肝病風搐, 驚搐,

표 5. 『草本卷』澤瀉湯과 『東醫寶鑑』澤瀉湯 및 瀉靑丸의 구성약물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 澤瀉湯	『東醫寶鑑』		
		澤瀉湯(正傳)	澤瀉湯(仲景)	瀉靑丸(綱目)
玄蔘	1			
山梔子	1			等分
黃連	1			
草龍膽	1			等分
羌活	1			等分
防風	1			等分
澤瀉		1.5	25	
桑白皮		1.5		
赤茯苓		1.5		
枳殼		1.5		
檳榔		1.5		
木通		1.5		
生薑		五片		
白朮			15	
當歸				等分
川芎				等分
大黃 煨				等分

急驚風, 肝熱등에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6) 구성약물을 비교해 보면, 표 5.에 기재된 바와 같이 『草本卷』澤瀉湯은 『東醫寶鑑』의 瀉靑丸에서 大黃, 當歸, 川芎이 빠져 있고, 玄蔘과 黃連을 加해져 있다. 또한 丸으로 각 等分을 사용하였던 瀉靑丸의 藥物 구성을 따라서 모든 藥物이 1錢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5) 五苓散

五苓散은 『東醫寶鑑』·雜病篇卷三·寒(下)17)에 기재되어 있다. 이 五苓散은 『草本卷』의 五苓散과 차이가 있으며, 『甲午本』의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 기재된 五苓散과 동일한 藥物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6.에 기재된 바와 같다.

『草本卷』五苓散에서 滑石과 柴胡의 사용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五苓散의 운용 방면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다만 五苓散에 益元散(滑石, 甘草)을 같이 복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18) 이에 제시된 證은 『草本卷』五苓散의 主治證인 “治運氣, 熱結膀胱, 夏月腹痛泄瀉.”와 유사한 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492
 15)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618
 16)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672
 “實則兩竹俱緊 不轉 直視 凡目青 必發驚咬牙 甚者亦發驚 手循衣領亂捻物 甚則身強反張 宜瀉靑丸(方見五藏)”
 “肝病 風搐拘急 實則風搐力大 瀉靑丸主之 虛則風搐力小 六味地黃元主之.<錢乙>”
 17)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38
 “澤瀉二錢半 赤茯苓 白朮 猪苓 各一錢半 肉桂五分 右爲末每二錢 白湯調下 或剉作一貼水煎服”
 18)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東醫寶鑑』·雜病篇·卷十一·小兒·吐瀉 p.1079
 “暑月吐瀉 身熱 宜玉露散 或五苓散(方見寒門) 益元散 各半調服.”

표 6. 五苓散의 構成藥物 (단위:錢)

약물	『草本卷』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五苓散	五苓散(入門)	五苓散(仲景)
澤瀉	3	2.5	2.5
赤茯苓	2	1.5	1.5
猪苓	2	1.5	1.5
滑石	1		
柴胡	1		
白朮		1.5	1.5
肉桂		0.5	0.5

6) 益元散

益元散은 『東醫寶鑑』·雜病篇·卷三·暑·暑熱煩渴¹⁹⁾에 기재되어 있다. 『東醫寶鑑』에 기재된 益元散에는 『草本卷』 益元散의 朱砂가 없고, 益元散에 朱砂를 활용하는 예는 『東醫寶鑑』·內景篇·卷二·夢에 “大病後 虛煩不睡 溫膽湯主之. 甚者益元散(方見暑門)加朱砂 牛黃服之.<入門>”²⁰⁾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다.

『草本卷』 益元散은 『甲午本』과 『辛丑本』으로 가면서 新定된 朱砂益元散으로 바뀌어 가는데 『草本卷』 益元散의 甘草는 朱砂益元散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며, 滑石과 朱砂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남게 된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7.에 기재된 바와 같다.

『草本卷』 益元散의 主治證은 治暑氣腹痛이며 이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益元散의 主治證인 “治中暑 身熱 吐瀉 腸澀 下痢赤白 癰閉 澀胃中積聚寒熱 宜積氣 通九竅六府 生津液 去留結 消暑水 止渴除煩 大養脾胃之氣 解百藥 酒食 邪毒.”²¹⁾의 부분과 맥락이 이어진다. 『甲午本』의 朱砂益元散은 新定方篇에서 “治暑證”이라 하여 그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病證論에서는 용례가 없다. 『辛丑本』의 朱砂益元散은 新定方篇에서 “夏月滌暑 宜用”이라 하여 主治를

기재하고 있고 病證論에서는 용례가 없다. 이로써 東武가 夏月에 少陽人에게 사용할 수 있는 藥方으로 『草本卷』에서는 益元散을 제시하고 『甲午本』과 『辛丑本』으로 오면서 朱砂益元散을 만들고, 滑石과 朱砂의 藥物로 해결해 보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 『草本卷』 益元散과 『東醫寶鑑』에 기재된 益元散 및 『甲午·辛丑本』 朱砂益元散의 구성약물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益元散	益元散(宣明)	朱砂益元散	朱砂益元散
滑石	2.5 (木)	60	1.5	2
甘草	0.5 (木)	10		
朱砂	0.1 (木)		0.1	0.1
白虎膏			1.5	
澤瀉				1
甘遂				0.5

7) 導赤散

導赤散은 『東醫寶鑑』·內景篇·卷三·小腸腑·小腸病治法²²⁾에 기재되어 있다. 『草本卷』 導赤散은 이 『東醫寶鑑』의 導赤散에서 甘草와 靑竹葉을 제외하고 生地黃과 木通의 약대로 병증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草本卷』 千金導赤散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다시 『甲午本』과 『辛丑本』에서 新定된 千金導赤散으로 이어진다. 『草本卷』 千金導赤散은 『東醫寶鑑』에서 同一한 藥方名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導赤散에서 黃連, 柴胡, 山茱萸, 覆盆子を 모두 加味해서 사용하는 모습도 또한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없다. 다만 導赤散에 黃連을 쓰는 용례는 볼 수 있다.²³⁾

『草本卷』 導赤散, 『草本卷』 千金導赤散, 『甲

19)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79

“滑石六兩 甘草灸一兩 右細末每三錢溫蜜水調服欲冷飲者并水調下<宣明>”

20)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237

21)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79

22)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344

“治小腸熱 小便不利 生地黃 木通 甘草各一錢 右剉入靑竹葉七片 同煎服<錢乙>”

23)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東醫寶鑑』·內景篇·卷三·心臟·心病治法·十味導赤散 p.313

“治心藏實熱 口舌生瘡 驚悸 煩渴 黃連 黃芩 麥門冬 半夏 地骨皮 茯苓 赤芍藥 木通 生地黃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薑五片水煎服<活人書>”

午本』千金導赤散, 『辛丑本』荊防導赤散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藥物은 生地黃과 木通이며 이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導赤散에서도 공통된 藥物이다. 이로써 『草本卷』 導赤散은 『東醫寶鑑』의 導赤散에서 藥物을 제하고 설정하였다가, 『草本卷』 千金導赤散을 新定하고 이것은 『甲午本』 千金導赤散으로 동일하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辛丑本』에서는 生地黃과 木通을 사용하는 모습은 남아 있으나, 千金導赤散이 사라지고 荊防導赤散이 新定되어 生地黃과 木通을 제외한 나머지 藥物들은 대거 변화하게 된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8.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8. 導赤散類 藥方의 構成藥物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 導赤散	『草本卷』 千金導赤散	『東醫寶鑑』 導赤散(錢乙)	『甲午本』 千金導赤散	『辛丑本』 荊防導赤散
	生地黃	3	4	1	4
木通	2	2	1	2	2
黃連		2		2	
柴胡		2		2	
山茱萸		2		2	
覆盆子		2		2	
甘草			1		
青竹葉			七片		
玄參					1.5
瓜蒌仁					1.5
前胡					1
羌活					1
獨活					1
荊芥					1
防風					1

『草本卷』 導赤散의 主治證은 “治外感內熱 其證 目的 頭痛 小便赤澀”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導赤散의 主治證이 “治小腸熱 小便不利”이고 “治心熱實 小腸之藥”이라하여 心熱로 인한 증상과 小便不利의 證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같은 맥락으로 연결된다.

8) 白虎湯

『草本卷』에서는 白虎湯이 두 번 기재되는데, 一統에 기재된 白虎湯과 二統에 기재된 白虎湯은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약물 구성상의 차이를 보인다. 이 白虎湯을 『東醫寶鑑』에서 찾아보면 『東醫寶鑑』·雜病篇·卷二·寒(上)24에 기재되어 있다. 이는 一統에 기재된 白虎湯의 약물구성과 더 유사하며, 다만 一統에 기재된 白虎湯에서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白虎湯에서 甘草가 제하여 졌다. 이 『東醫寶鑑』에 기재된 白虎湯은 仲景의 白虎湯과 약물 구성이 동일하고 다만 용량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甲午本』 「張仲景 傷寒論 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 기재된 白虎湯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入門의 白虎湯과 약물구성과 용량에 있어서 동일하며, 張仲景의 傷寒論에 기재된 白虎湯과는 동일한 약물 구성을 가지나, 약물 개개의 용량은 차이가 있다. 이로써 『甲午本』에서 기재된 仲景의 白虎湯이라고 한 것이 실제로는 『東醫寶鑑』에 기재된 入門의 白虎湯을 그대로 가져다가 기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甲午本』에 新定된 白虎湯은 약물 구성이 『草本卷』 二統에 기재된 白虎湯과 동일하며 知母의 용량만 二錢에서 三錢으로 바뀌었다. 白虎湯의 藥物 구성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草本卷』 一統의 白虎湯은 仲景의 白虎湯에서 甘草를 去하고 구성하였다가, 다시 『草本卷』 二統에서 粳米를 去하고 生地黃을 加하여 재구성하였다. 이후 『甲午本』으로 가면서 『草本卷』 二統에 기재된 白虎湯에서 知母의 용량을 증가하여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9.에 기재된 바와 같다.

『草本卷』 一統 白虎湯에 기재된 主治證은 “治運氣 熱煩 發狂 熱煩過時則發狂 發狂過時則危 先用敗毒散後用此方. 少陰發狂, 承氣湯

24)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06
“石膏 五錢 知母 二錢 甘草 七分 粳米 半合 右剉作一貼水煎服<入門>”

主之. 少陽發狂 此方主之. 熱煩二三貼連腹 發狂六七貼連腹.”으로 熱煩과 發狂에 사용하는 藥方으로 기재하고 있고, 『草本卷』 二統 白虎湯에 기재된 主治證은 “治諺語證”으로 기재하고 있다.

『東醫寶鑑』에 기재된 白虎湯의 主治證은 “治陽明病 汗多 煩渴 脈洪大”²⁵⁾이고, 이 白虎湯이 기재된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熱厥頭痛, 陽明頭痛, 癩疹, 陽明形證, 陽明證汗渴, 傷寒陽厥, 傷寒陽毒, 傷寒合病, 餘熱不退, 中暑(其咳嗽 發寒熱 盜汗 不止 脈數者), 肺熱, 潮熱, 火喘등에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白虎湯의 藥物 構成 (단위:錢)

약방	『草本卷』	『草本卷』	『東醫寶鑑』	白虎湯	『甲午本』	『甲午本』
	白虎湯 (一統)	白虎湯 (二統)	白虎湯 (入門)	(仲景 傷寒論)	『字正本』 白虎湯 (仲景)	白虎湯
石膏	4	4	5	一斤 (碎)	5	4
知母	2	2	2	60	2	3
粳米	少許		半合	六合	半合	
生地黃		4				4
甘草			0.7	20 (炙)	0.7	

白虎湯類의 약방을 찾아보면, 『草本卷』에서는 白虎湯 外에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을 제시하고 있는데, 『甲午本』으로 가면서 白虎湯, 渡海白虎湯, 猪苓白虎湯, 陽毒白虎湯이 그대로 연결되며, 『辛丑本』에서는 地黃白虎湯, 陽毒白虎湯으로 남게 된다.

白虎湯類의 공통 약물은 『草本卷』 二統의 白虎湯에서 설정된 石膏, 知母, 生地黃이다. 이것은 『草本卷』과 『甲午本』, 『辛丑本』에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陽毒白虎湯의 변천과정에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東武는 『草本卷』과 『甲午本』의 陽毒白虎湯에서는 知母를 사용하지 않았다가, 『辛丑本』의 陽毒白虎湯에서는 다시 知

母를 활용하며 『草本卷』과 『甲午本』의 陽毒白虎湯에서 羌活, 獨活, 玄參, 柴胡, 梔子, 忍冬藤, 薄荷를 去하고 防風을 加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각 藥方の 構成약물은 표 10.에 기재한 바와 같다.

표 10. 白虎湯類의 構成藥物 (단위:錢)

약방	『草本卷』				『甲午本』				『辛丑本』			
	白虎湯 (一統)	白虎湯 (二統)	渡海 白虎湯	猪苓 白虎湯	陽毒 白虎湯	白虎湯	錦上 添花 白虎湯	渡海 白虎湯	猪苓 白虎湯	陽毒 白虎湯	地黃 白虎湯	陽毒 白虎湯
石膏	4	4	2	4	4	4	4	4	4	4	5 或 10	5 或 10
知母	2	2	2	2		2	2	2	2		2	2
粳米	少許											
生地黃		4	2	4	4	4	4	2	4	4	4	4
覆盆子			2				2	2				
山茱萸			2				2	2				
肉苁蓉			2				2					
苦參			1				1					
枸杞子			1				1					
黃柏				1					1			
澤瀉				1					1			
猪苓				1					1			
赤茯苓				1					1			
荊芥					1					1		1
牛蒡子					1					1		1
羌活					1					1		
獨活					0.5					0.5	1	
玄參					0.5					0.5		
柴胡					0.5					0.5		
山梔子					0.5					0.5		
忍冬藤					0.5					0.5		
薄荷					0.5					0.5		
防風											1	1

9) 陷胸湯

陷胸湯은 『東醫寶鑑』·雜病篇·卷三·寒(下)에서 “熱實結胸 及寒實結胸 活人書 不拘寒熱 但用陷胸湯 不差用枳實理中丸 應手而愈(綱目)”²⁶⁾라고 기재되어 있고, 陷胸湯으로 名名된 藥方の 구성은 찾을 수 없다. 다만 大陷胸湯, 小陷胸湯과 유사한 藥物 구성을 찾아 볼 수 있다. 『草本卷』 陷胸湯은 『草本卷』에만 기재되고, 『甲午本』과 『辛丑本』에서는 나타나지

25)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06

26)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041

않으며, 다만 仲景의 大陷胸湯과 小陷胸湯을 「張仲景 傷寒論中 少陽人病 經驗設方藥 十方」에서 기재하고 있다. 약물의 구성을 살펴보면 大陷胸湯의 芒硝, 甘遂와 小陷胸湯의 黃連을 사용하여 기재하였는데, 이는 大陷胸湯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 사용된 大黃, 小陷胸湯에서 가장 많은 용량이 사용된 半夏를 제외하고 少陽人 藥物로 여겨지는 약물만으로 취합하여 少陽人의 結胸과 水逆에 가장 적합한 藥方을 창방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 藥方의 藥物 구성은 표 11.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11. 陷胸湯, 大陷胸湯, 小陷胸湯의 구성약물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 陷胸湯	『東醫寶鑑』		『甲午本』, 『辛丑本』 大陷胸湯(仲景)	『甲午本』, 『辛丑本』 小陷胸湯(仲景)
		大陷胸湯(仲景)	小陷胸湯(仲景)		
黃連	3		2.5		2.5
芒硝	2	2		2	
甘遂	1	0.5(末)		0.5(末)	
大黃		3		3	
半夏			5(製)		5(製)
瓜蒌			大者四分之一		大者四分之一

『草本卷』陷胸湯 主治證은 “治運氣 結胸 水逆 結胸過時則水逆 水逆過時則危. 先用五苓散, 後用此方.”으로 白虎湯의 主治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少陽人의 結胸과 水逆에 주요한 藥方을 창방한 것으로 보이며, 白虎湯은 “治運氣 熱煩 發狂 熱煩過時則發狂 發狂過時則危 先用敗毒散後用此方.”이라 하여 少陽人의 熱煩과 發狂에 요긴한 藥方을 찾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白虎湯의 정신은 『辛丑本』까지 연계되어 『辛丑本』新定方인 地黃白虎湯과 陽毒白虎湯으로 이어지나, 陷胸湯의 結胸과 水逆의 개념은 『辛丑本』으로 연계되기보다

는 『草本卷』의 시각에서 멈추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10) 朱砂安神湯

『草本卷』朱砂安神湯은 『東醫寶鑑』에 동일한 藥方名으로 기재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다만 朱砂安神丸이 『東醫寶鑑』에 기재되어 있다. 이 『東醫寶鑑』에 기재된 朱砂安神丸과 『草本卷』朱砂安神湯의 藥物 구성은 비록 차이가 있으나, 『草本卷』朱砂安神湯은 『東醫寶鑑』의 朱砂安神丸에서 少陽人에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藥物을 去하고 枸杞子와 白茯苓을 加한 약방의 구성으로 생각된다. 『草本卷』朱砂安神湯의 원문을 살펴보면 “黃連, 朱砂, 枸杞子, 白茯苓, 各等分 作丸”으로 藥方名은 湯劑이나 藥물구성을 기재한 부분에 있어서 丸劑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東武가 제시하고자 한 朱砂安神湯은 기실 湯劑이기보다 丸劑로 생각하고 기재한 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1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2. 『草本卷』朱砂安神湯과 『東醫寶鑑』朱砂安神丸의 구성약물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朱砂安神湯	『東醫寶鑑』
		朱砂安神丸(入門)
黃連	等分	6
朱砂	等分	5
枸杞子	等分	
白茯苓	等分	
甘草		3.5
生乾地黃 酒洗		3.5
當歸 酒洗		2.5

11) 肥兒丸

肥兒丸은 『東醫寶鑑』·雜病篇·卷十一·小兒27)에 기재되어 있다. 『草本卷』肥兒丸은

27)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700

“凡疳病 以肥兒丸 疳積餅爲主 此藥 消疳化積 磨癆清熱 伐肝補脾 進食殺虫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半 人參 黃連 薑汁炒 神麩炒 麥芽炒 山楂肉 各三錢半 白朮 白茯苓 甘草灸 各三錢 蘆薈 碗盛泥裹煨灰火煨透 二錢半 右爲末 黃米糊和丸 菉豆大 米飲下 二三十丸<醫鑑>”

이 『東醫寶鑑』에 기재된 肥兒丸에서 人參, 黃連, 神麩, 山查肉, 白朮, 甘草를 去하고 胡黃連을 加하여 構成하고 있다. 이러한 『草本卷』 肥兒丸의 藥方 構成은 『甲午本』에서 이어지지 않으며, 『甲午本』 「元明二代 醫家著述中 少陽人病 行用要藥 九方」에 제시된 肥兒丸은 『東醫寶鑑』에 기재된 肥兒丸과 동일한 藥物 構成을 가지고, 東武는 肥兒丸의 활용에 대해 今考更定된 藥方만을 제시하고 있다. 『草本卷』 부터 『東醫寶鑑』 및 『甲午本』 「元明二代 醫家著述中 少陽人病 行用要藥 九方」에 기재된 肥兒丸의 공통 藥物은 胡黃連, 麥芽, 白茯苓, 蘆薈이다. 使君子는 『甲午本』에서 今考更定시에 “未能經驗的知藥性故 不可輕論”이라 하였는데, 이는 東武가 藥方에 들어가는 藥物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 것으로 각 藥物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간접적, 직접적 經驗이 가하여 졌을 때 자신의 시각에서 재해석하여 각각의 藥방에 들어가는 藥物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각 藥方의 構成약물은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3. 肥兒丸의 藥物 構成 (단위:錢)

藥方 藥物	『草本卷』 肥兒丸	『東醫寶鑑』 肥兒丸(醫鑑)	『甲午本』, 『辛丑本』 肥兒丸(醫鑑)	肥兒丸 (今考更定)
川黃連	10			
胡黃連	5	5	5	5
使君子	5	4.5(使君子肉)	4.5(使君子肉)	未能經驗的 知藥性故 不可輕論
麥芽	5	3.5 (炒)	3.5	3.5
白茯苓	5	3	3	3
蘆薈 煨	2.5	2.5	2.5	2.5
人參		3.5	3.5	
黃連 薑汁炒		3.5	3.5	3.5
神麩		3.5	3.5	3.5
山查肉		3.5	3.5	
白朮		3	3	
甘草 炙		3	3	

『草本卷』 肥兒丸의 主治證은 “治小兒疳病”이고 『東醫寶鑑』에서 제시된 肥兒丸의 主治는 “凡疳病 以肥兒丸”이며, 『甲午本』에서 기재된 主治證은 “治小兒疳積”으로 『草本卷』에서 『甲午本』에 이르기까지 肥兒丸의 主治證은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12) 甘遂天一丸

『草本卷』 甘遂天一丸은 『東醫寶鑑』에 동일한 藥方名으로 기재된 것은 없다. 다만 『東醫寶鑑』·內景篇·卷一·神에 기재된 甘遂散의 藥物 構成과 유사하다. 甘遂散은 『東醫寶鑑』 雜病篇·卷一·神28)에 기재되어 있는데, 『草本卷』 甘遂天一丸에서 사용된 輕粉이 『東醫寶鑑』의 甘遂散에는 없고 甘遂散에서는 朱砂를 1錢 사용하였으나 甘遂天一丸에서는 朱砂를 0.1錢 사용하였다. 이후 『甲午本』에서는 甘遂天一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辛丑本』 新定方에 甘遂天一丸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辛丑本』 甘遂天一丸의 藥物 구성은 『草本卷』 甘遂天一丸의 藥物 구성이 같고, 다만 朱砂의 用量이 『辛丑本』에서는 “爲衣”로 정확한 用量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각 藥方의 藥物 구성은 표 14.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14. 甘遂天一丸과 甘遂散의 藥物 構成.

(단위:錢)

藥方 藥物	『草本卷』 甘遂天一丸	『東醫寶鑑』 甘遂散(得效)	『辛丑本』 甘遂天一丸
甘遂	1	1 (末)	1 (末)
朱砂	0.1	1 (辰砂水飛末)	爲衣
輕粉	0.1		0.1 (末)

『草本卷』 甘遂天一丸과 『東醫寶鑑』 甘遂散의 主治證을 살펴보면, 『草本卷』 甘遂天一丸은 “治上焦咽喉, 中焦暑證, 下焦痢疾, 小兒驚

28)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194

“治五種癲癩 及婦人心風 血迷神效. 甘遂末一錢 以猪心血和勻 將猪心批作兩片 入在內 再合 以線札縛 皮紙包濕 慢火煨熟 取藥出研細 入辰砂水飛末一錢 和勻 分作四丸 每一丸 將所煨猪心煎湯化下. 如大便下惡物即止. 不效 再服一丸<得效>”

風, 大人胸痞, 凡大便不快者, 皆可用之.”이고 『東醫寶鑑』 甘遂散의 主治證은 “治五種癩癧及婦人心風 血迷神效.”로 그다지 유사한 證이 있지 않으나 甘遂散에 “如大便下惡物即止.”라 기재된 조문은 甘遂天一丸에 “凡大便不快者, 皆可用之.”라 기재한 조문과 유사하다. 이러한 大便이 不通하고 宣通하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개념은 『辛丑本』 甘遂天一丸에까지 이어지는데, 이는 『辛丑本』에서 “嘗治少陽人咽喉 水嚮不入 大便不通三日 病至危境 用甘遂天一丸 卽效”라 기재된 것과 “不下利 則再用二丸 下利 三度爲適中 六度爲快過 預煎米飲 下利 二三度 因進米飲 否則氣陷而難堪耐”라 기재된 것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3) 防風通聖散

防風通聖散은 『東醫寶鑑』에서 雜病篇·卷二·風29)에 기재되어 있다. 이 『東醫寶鑑』에 기재된 防風通聖散의 구성약물과 『草本卷』 防風通聖散의 구성약물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표 15. 防風通聖散의 구성 약물 (단위:錢)

약방 약물	『草本卷』 防風通聖散	『東醫寶鑑』 防風通聖散(入門)	『甲午本』 防風通聖散
	滑石	2	
生地黃	2		2
防風	1	0.45	1
石膏	1	0.7	1
羌活	0.5		0.5
獨活	0.5		0.5
柴胡	0.5		0.5
前胡	0.5		0.5
薄荷	0.5	0.45	0.5
牛蒡子	0.5		0.5
梔子	0.5	0.35	0.5
甘草		1.2	
黃芩		0.7	

약방 약물	『草本卷』 防風通聖散	『東醫寶鑑』 防風通聖散(入門)	『甲午本』 防風通聖散
	桔梗		
川芎		0.45	
當歸		0.45	
赤芍藥		0.45	
大黃		0.45	
麻黃		0.45	
連翹		0.45	
芒硝		0.45	
荊芥		0.35	
白朮		0.35	
生薑		五片	

데, 공통된 약물은 滑石, 防風, 石膏, 薄荷, 梔子이고 『草本卷』 防風通聖散에서 새로 加해진 藥物은 生地黃, 羌活, 獨活, 柴胡, 前胡, 牛蒡子이다. 또한 공통된 약물의 용량도 『草本卷』 防風通聖散에서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모두 변하게 된다. 이 『草本卷』 防風通聖散은 『甲午本』 防風通聖散으로 약물의 구성 및 용량의 변화 없이 그대로 이어진다. 각 藥方의 구성약물은 표 15.에 기재된 바와 같다.

『東醫寶鑑』 防風通聖散에 기재된 主治證을 살펴보면 “治諸風熱 或中風不語 暴瘡 語聲不出 或洗頭風 破傷風 諸般風搐 小兒驚風 積熱 或瘡疹黑陷將死 或傷寒疫厲 不能辨明 或風熱 瘡疥 或頭生白屑 或面鼻生紫 赤風刺 癩疹 肺風瘡 或大風癩疾 或風火鬱甚 爲腹滿溢痛 煩渴 喘悶 或熱極生風 爲舌強口噤 筋惕肉瞤 或大小瘡腫 惡毒 或熱結 大小便不通 并解酒傷熱毒 <宣明>”³⁰⁾으로 기재되어 있고, 『草本卷』 防風通聖散의 主治證은 “治發熱陽毒證”으로 『東醫寶鑑』에 기재된 主治證中 일부를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29)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967

“滑石 一錢七分 甘草 一錢二分 石膏 黃芩 桔梗 各七分 防風 川芎 當歸 赤芍藥 大黃 麻黃 薄荷 連翹 芒硝 各四分半 荊芥 白朮 梔子 各三分半 右剉作一貼入薑五片 水煎服<入門>”

30)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前掲書. p.967

3. 『東醫寶鑑』에서 찾아볼 수 있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의 藥物

『草本卷』 少陽人 藥方중에서 『東醫寶鑑』에同名으로 기재된 10개의 藥方은 모두 동일한 藥物 구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東醫寶鑑』에 기재된 藥方에서 藥物을 加減하고 있다. 즉 東武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을 선택함에 있어서 기존의 藥方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理論에 맞추어 加減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加減의 방면에 있어서는 敗毒散, 益元散의 甘草, 白虎湯(一統)의 粳米, 肥兒丸의 使君子를 제외하고 현재 少陽人 藥物로 알려진 藥物만을 사용하여 加減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東武가 『草本卷』에서 이미 각 體質에 맞는 藥物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주며, 각 體質에 맞지 않는 藥物은 기존의 藥方에서 去하고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藥物을 加味하는 방향에서 『草本卷』 藥方을 立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東醫寶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少陽人 藥方을 살펴보면, 각 藥方에서 공통되는 藥物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 藥物들은 朴³¹⁾의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³¹⁾에서 밝힌 바와 같이, 東武의 新定方의 構成原理를 알려주는 초기 생각에 의거하여 구성된 藥物들과 상당수의 藥物들이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同名藥方이 있는 『草本卷』 藥方을 살펴보면, 『草本卷』 敗毒散과 『東醫寶鑑』에 기재된 人蔘敗毒散, 荊防敗毒散, 加味敗毒散의 共通藥物은 羌活, 獨活, 柴胡, 防風, 荊芥이고, 『草本卷』 三黃石膏湯과 『東醫寶鑑』의 三黃石膏湯의 共通藥物은 石膏, 山梔子, 黃連, 黃芩이다. 『草本卷』 澤瀉湯과 『東醫寶鑑』 澤瀉湯의 共通藥物은 없으나, 備忘錄에 기재

된 瀉清湯으로 본다면, 『東醫寶鑑』 瀉青丸과 共通藥物은 山梔子, 草龍膽, 羌活, 防風이다. 『草本卷』 五苓散과 『東醫寶鑑』 五苓散의 共通藥物은 澤瀉, 赤茯苓, 猪苓이고, 『草本卷』 益元散과, 『東醫寶鑑』 益元散의 共通藥物은 滑石, 甘草이며, 『草本卷』 導赤散과 『東醫寶鑑』 導赤散과 共通藥物은 生地黃, 木通이다. 『草本卷』 白虎湯과 『東醫寶鑑』 白虎湯의 共通藥物은 石膏, 知母이고, 『草本卷』 肥兒丸과 『東醫寶鑑』 肥兒丸의 共通藥物은 胡黃連, 使君子, 麥芽, 白茯苓, 蘆薈이며, 『草本卷』 防風通聖散과 『東醫寶鑑』 防風通聖散의 共通藥物은 滑石, 防風, 石膏, 薄荷, 梔子이다. 또한 『東醫寶鑑』에 同名藥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유사한 藥方을 찾을 수 있는 藥方을 비교해 보면, 『草本卷』 六味地黃湯과 『東醫寶鑑』 六味地黃丸의 共通藥物은 熟地黃, 山茱萸, 白茯苓, 澤瀉, 牡丹皮이고, 『草本卷』 陷胸湯과 『東醫寶鑑』 大陷胸湯, 小陷胸湯의 共通藥物은 黃連, 芒硝, 甘遂이며, 『草本卷』 朱砂安神湯과 『東醫寶鑑』 朱砂安神丸의 共通藥物은 黃連, 朱砂이고, 『草本卷』 甘遂天一丸과 『東醫寶鑑』 甘遂散의 共通藥物은 甘遂, 朱砂이다. 이상의 共通藥物들을 모두 모아보면, 羌活, 防風, 石膏, 梔子(山梔子), 黃連(胡黃連), 黃芩, 澤瀉, 茯苓(赤茯苓, 白茯苓), 猪苓, 滑石, 生地黃, 木通, 知母, 麥芽, 熟地黃, 山茱萸, 牡丹皮, 甘遂, 獨活, 柴胡, 荊芥, 草龍膽, 甘草, 使君子, 蘆薈, 薄荷, 芒硝, 朱砂이다. 이들 藥物 중 獨活, 柴胡, 荊芥, 草龍膽, 甘草, 使君子, 蘆薈, 薄荷, 芒硝, 朱砂의 10종 藥物을 제외하면 18종의 藥物이 모두 東武遺稿 藥性歌에 기재되어 있는 주요한 藥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18종을 제외한 東武遺稿 藥性歌의 藥物 중 枳椇子³²⁾, 瓜蒌仁³³⁾, 竹瀝³⁴⁾, 地骨皮³⁵⁾, 輕粉³⁶⁾은 『草本卷』 少陽人

31)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32) 『草本卷』 六味地黃湯, 知柏地黃湯, 地骨皮地黃湯, 渡海白虎湯, 水火既濟湯에서 사용되었다.

33) 『草本卷』 柴胡瓜蒌湯, 麥苧湯, 瓜蒌仁地黃湯, 黃柏地黃湯, 腰將軍湯, 麥瓜湯, 加味既濟湯, 消陽散火湯에서 사용되었다.

34) 『草本卷』 六味地黃湯에서 “加竹瀝 生地黃 治吐血”이라하여 사용하는 예가 있다.

藥方에 사용되었으며, 사용되지 않은 藥物은 黑桑椹, 石花, 童便, 竹茹의 4종 藥物이다.

이상에서 『草本卷』 少陽人 藥方을 구성하고 있는 藥物의 기본적 골격은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제시한 27종의 少陽人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羌活, 防風, 石膏, 梔子, 黃連, 黃栢, 澤瀉, 茯苓, 猪苓, 滑石, 生地黃, 木通, 知母, 麥芽, 熟地黃, 山茱萸, 牡丹皮, 甘遂의 18종의 藥物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공통되는 藥物로 東武가 『東醫寶鑑』에서 少陽人 藥方の 기본골격으로 파악한 藥物로 볼 수 있다.

Ⅲ. 結 論

1. 『東醫寶鑑』에서 同名으로 기재된 『草本卷』 少陽人 藥方の 구성은 『東醫寶鑑』 藥方과 일치하는 것이 없고, 少陽人 體質에 맞지 않는 藥物을 去하고 가장 적합한 藥物을 加하여 구성하고 있다.

2. 『東醫寶鑑』과 同名의 藥方중 敗毒散, 益元散의 甘草, 白虎湯(一統)의 粳米, 肥兒丸의 使君子를 去하지 않고 『草本卷』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당시까지 藥物에 대한 인식이 아직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東醫寶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草本

卷』 少陽人 藥方중 敗毒散, 六味地黃湯, 白虎湯은 『辛丑本』까지 이어져 少陽人의 대표적인 藥方으로 남게 된다.

4. 『東醫寶鑑』에서 찾아 볼 수 있는 『草本卷』 少陽人 藥方과 『東醫寶鑑』 藥方の 共通藥物들은 東武遺稿 藥性歌에 기재된 藥物과 熟地黃, 山茱萸등 18종이 일치하며, 이는 東武가 『東醫寶鑑』에서 少陽人 藥方の 기본골격으로 파악한 藥物로 볼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李濟馬 原著·朴性植 譯解. 東醫壽世保元 四象草本卷. 서울. 集文堂. 2003.
2.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甲午本』(復元本). 서울. 四象體質醫學會. 2001.
3.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影印本). 서울. 大星文化社. 1998.
4. 裴孝相·朴性植. 少陽人 藥方の 형성 과정에 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2:14 (3):33-51
5. 許俊 著. 對譯 『東醫寶鑑』. 서울. 법인문화사. 1999.
6. 朴性植.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2001:13(2):8-27

35) 『草本卷』: 地骨皮地黃湯, 消毒散火湯, 蓼瓜湯에서 사용되었다.

36) 『草本卷』: 甘遂天一丸, 輕粉丸에서 사용되었다.